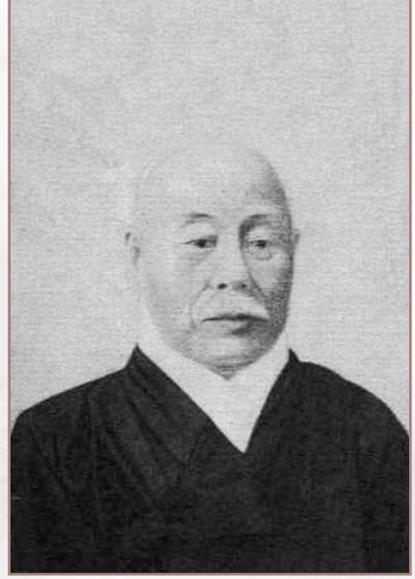


역사 속에 빛나는
벤처정신
●
VENTURE

글_ 박천홍_ 자유기고가

주술적 세계관에서 민중을 해방시킨 '한국의 제너' 지식영



요즘 '사스' (SARS, 중증급성호흡기중후군)라는 유령이 전세계를 배회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국 광둥성에서 처음 발병된 이래 지금까지 환자 6000여명, 사망자 500여명을 기록하며 세계를 일주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사스 감염자 치사율이 14~15%에 이른다고 보고했다. 인간복제 문제로 떠들썩한 시대에 정체 불명의 바이러스에 급습당한 형국이니 기고만장하던 인류의 코가 납작해질 만도 하다.

1세기 전만 해도 우리 나라에는 사스를 능가하는 공포의 전염병이 활보하고 있었다.

바로 '마마'라고 불리던 천연두(두창)가 그것이다. 이 병에 걸리면 온몸에 좁쌀 만한 붉은 반점이 생기고 고름이 흐른다. 치사율이 30%에 이르고 목숨을 건진다고 해도 얼굴에 흉한 곰보자국이 남는다. 오죽했으면 '조용히 보내드리고 싶은 손님'으로 불렸겠는가. 우리 나라에서는 1960년에 천연두가 자취를 감췄고, 세계보건기구는 1980년에 천연두 박멸을 선언했다.

우리 나라에서 천연두 퇴치의 일등공신은 지식영(1855~1936)이었다. 그는 1796년에 영국인 제너가 개발한 종두법을 1879년 국내에 전파시킨 장본인이었다. 종두법의 창시자가 아니라 전파자란 점에서 그의 공덕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관심을 끄는 대목은 다른 데 있다.

즉 주술적이고 비합리적인 민간의 신앙체계를 막 내리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세계를 열어갔다는 점에서 그의 역할은 작지 않았다.

국가 보건체제가 허술했던 조선시대에 민간세계에서는 '손님'을 박대하는 나름대로의 처방책을 가지고 있었다. 이른바 '인두종법'(人痘種法)이라는 게 그것인데, 무균 상태에 있는 천연두 환자의 마마딱지를 정상인의 콧구멍에 붙여서 면역성을 키우게 하는 방법이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매우 원시적이고 위험한 예방법이었다. 이마저도 효력이 없으면, 맹인이나 무당을 찾아가 악귀를 쫓았다.

빈한한 한약방집 막내로 태어난 지식영은 일찌감치 개화사상가였던 강위 밑에서 공부하며 신학문에 눈을 떴다. 당시 중국에서는 서양 의학자가 여럿 번역되어 있었는데, 그는 이런 책을 통해 종두법을 알게 되었다.

그의 동학이었던 박영선이 1876년 수신사의 일행으로 일본에 건너가 《종두귀감》이란 의학서를 가지고 왔다. 지식영은 이 책으로 종두법

을 스스로 익혔다. 스물 다섯 되던 해인 1879년에 그의 조카가 천연두로 사망했는데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절망한 그는 일본인 거류지인 부산으로 내려갔다.

당시 부산에서는 재생병원이란 일본인 병원이 개설되어 있었다. 지식영은 그곳에서 2개월 동안 머물면서 종두법과 함께 서양의학의 기초지식을 습득했다.

지식영은 두묘(痘苗) 세 그릇과 종두침 2개, 접종기구, 의학서적 등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오는 도중 처가에 들렀다. 두 살 난 처남에게 종두를 접종하려 했다.

한마디로 일가에게 생체실험을 요구한 것이다. 처가에서는 한사코 반대했다. 아무 탈없는 아이에게 쇠고름을 넣는다고 우기니 그럴 만도 했다. 자기 의술을 믿지 못하는 처가에 절연까지 불사하며 화를 내자 처가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접종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국내 최초의 종두 접종은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졌다. 이 실험이 성공하자 마을 주민 42명에게도 시술했다.

1880년 서울에 올라온 지식영은 양반가문의 자녀들을 접종시켜 머지 않아 장안에서는 우두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두묘가 모자라 시술은 곧 중단되었다. 그는 2차 수신사 일행으로 일본에 건너가 일본 내무성 위생국에서 두묘 제조와 저장법 등을 배워왔다.

전라도 전주와 충청도 공주에 우두국을 설치해 종두법 전파에 힘썼지만 정적의 모함으로 5년 동안 유배의 몸이 되었다. 유배지 강진 신지도에서도 그의 우두 시술은 멈추지 않았다.

갑오경장 이후 또 한번 유배형을 선고받고 곧 풀려나자 그는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벼슬에 뜻을 버렸다.

1898년 11월에는 학부대신 이도재에게 관립 의학교를 설립할 것을 건의해 이듬해 서양의학 교육기관인 한성의학교 초대 교장으로 추대되었다. 그는 후학을 양성하는 한편 종두법을 법제화하는 데도 힘을 기울였다. 그의 몸을 아끼지 않는 열정으로 이 땅에서 천연두는 점차 설 땅을 잃어가게 되었다. 